

안녕, 라이동

68일간의 홈스테이 이야기

You will be in my heart forever.



태국팀 12월 보고서



라이동 활동이지 라잉 놀이





좌충우돌 비자 연장기

보통 비자 트립으로 인접 국가를 짧게 여행하고 오는 태국팀!
하지만 법이 바뀌어 12기는 체류 90일 이전에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를 연장해야 했다. 참으로 간단해 보이는 이 한 문장으로 태국팀의 좌충우돌 비자 연장기를 끝내기엔 아피들이 너무도 많은 여정을 거쳐야 했다.

웃고 있지만 눈 밑의 주름에서 피곤함을 엿볼 수 있는 사진 속 우희 단원과 그의 손에 들린 묵직한 서류 봉투, 그리고 그의 뒷자리에서 지쳐 잠든 동영, 민희 단원. 아까운 홈스테이 기간을 쪼개 라이동 마을과 치앙마이로 오가며 아피들은 4차례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했고 그 곳에서 20시간이 넘게 기다려야 했다. 날짜 계산을 좋아하는 한 단원의 계산에 따르면 홈스테이 기간의 약 20%가 비자 연장을 위한 치앙마이 체류 기간이었다고 한다.

11월 21일.

- 출입국 사무소(이하 사무소) 첫 방문: 새벽 6시에 출발해 5시간이 넘게 출입국 사무소에서 순서를 기다렸으나 구비된 서류 중 일부 서명이 선명하지 않게 복사됐다는 이유로 퇴짜.

11월 24일

- 서류 재검토 후 출입국 사무소 재방문.: 역시 새벽 6시쯤에 출발해 5시간 넘게 기다렸으나, 사인 하나만 수정하면 된다고 했던 그 사무원은 어디로 가고 새로운 사무원분이 아피들의 'work permit'을 요구. 여자단원들은 사무소 직원분들의 얼굴 한번 마주하지 못한 채로 사무소를 나와 work permit 발급을 위해 증명사진을 찍고, 건강검진을 함. (이튿날 work permit 신청을 위해 노동청 방문)

12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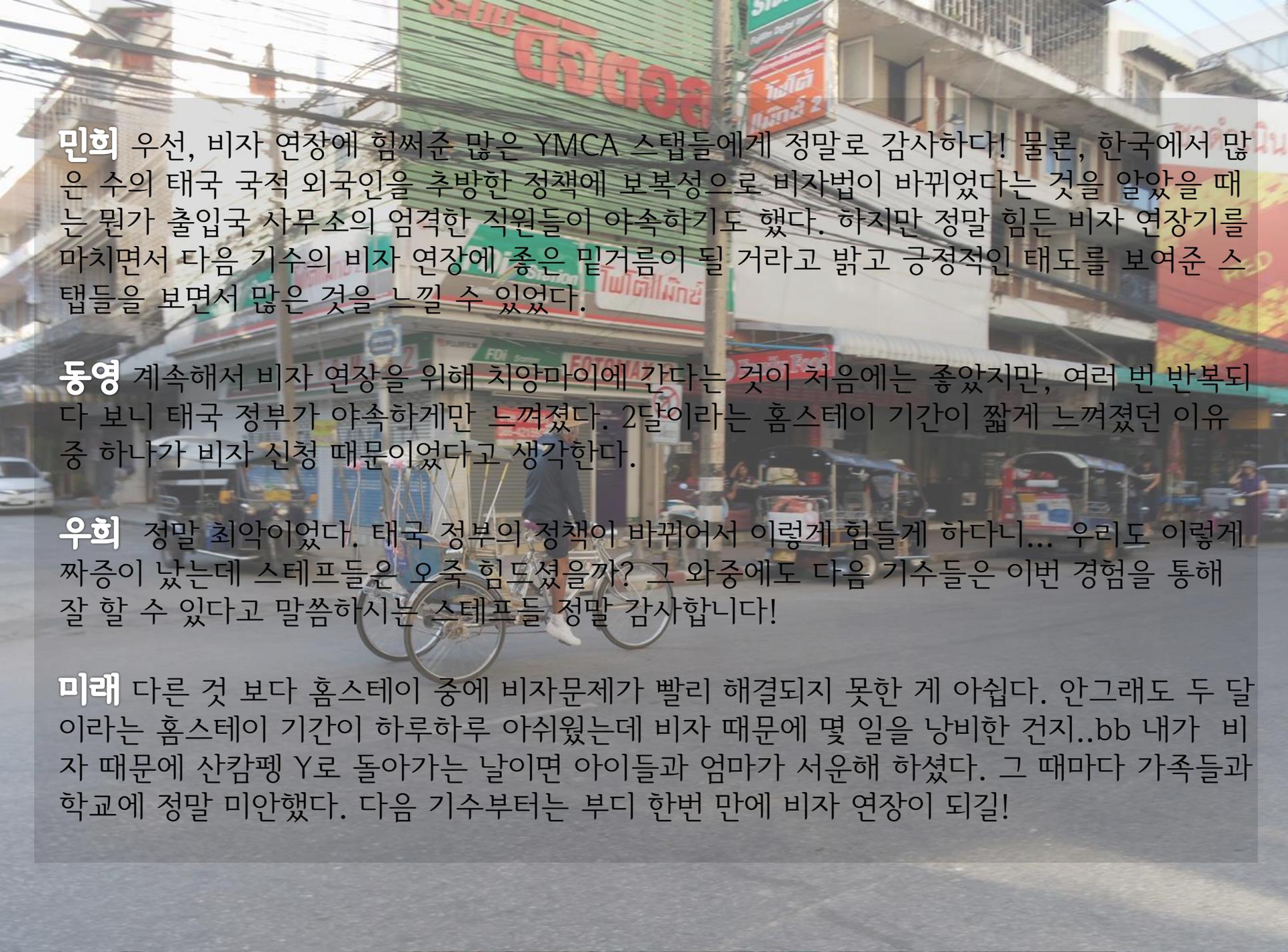
- Work permit이 예정보다 일찍 나와 11월 28일 발급 받고 출입국 사무소 방문했으나 추후 인터뷰로 YMCA 봉사자라는 신분이 확실해질 때까지 비자 연장 보류.

12월 9일

- 인터뷰 예정일로 아피들이 산캄팡으로 돌아와 있었으나 담당자분 오지 않음. 사무소에서 인터뷰 없이 비자 30일 연장 (90일 연장 승인 조건 : 12월 30일에 출입국 사무소에 다시 방문하여 재확인 인터뷰)

12월 30일

- 인터뷰: 치앙마이YMCA 호텔에서 약속이 잡혔으나 오전부터 오후까지 기다렸으나 담당자분이 오지 않으시다가 오후 4시경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 사무소에 가서 비자 90일 연장 성공.



민희 우선, 비자 연장에 힘써준 많은 YMCA 스텝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 물론, 한국에서 많은 수의 태국 국적 외국인을 추방한 정책에 보복성으로 비자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뭔가 출입국 사무소의 엄격한 직원들이 야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말 힘든 비자 연장기를 마치면서 다음 기수의 비자 연장에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 스텝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동영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위해 치앙마이에 간다는 것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태국 정부가 야속하게만 느껴졌다. 2달이라는 홈스테이 기간이 짧게 느껴졌던 이유 중 하나가 비자 신청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우희 정말 최악이었다. 태국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우리도 이렇게 짜증이 났는데 스텝들은 오죽 힘드셨을까? 그 와중에도 다음 기수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스텝들 정말 감사합니다!

미래 다른 것 보다 홈스테이 중에 비자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못한 게 아쉽다. 안그래도 두 달이라는 홈스테이 기간이 하루하루 아쉬웠는데 비자 때문에 몇 일을 낭비한 건지..bb 내가 비자 때문에 산캄펑 Y로 돌아가는 날이면 아이들과 엄마가 서운해 하셨다. 그 때마다 가족들과 학교에 정말 미안했다. 다음 기수부터는 부디 한번 만에 비자 연장이 되길!



서로 알아가기

서로 알아가기

- 중간평가 때 정동민 간사님이 내주신 숙제. 서로에 대해 알아야만 다름을 이해할 수 있기에 우리는 라온아띠 지원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 반응이 좋아 이후 우리의 안건 1번은 ‘서로 알아가기’이다.

동영 서로 알아가기, 쉬운 듯 어렵다. 같이 생활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서로가 어렵다. 그렇지만 이 시간을 통해 알게 된 건 다들 참 솔직하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정말 다르구나.

우희 신기했던 점은 내가 알고 있는 세 명과 지원서에 나타난 세 명이 똑같았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내가 이 세 명에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잘 지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기뻐했다. 그리고 몰랐던 솔직한 이야기들을 통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다.

미래 새로운걸 알려고 했는데 그들은 내가 알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일관된 가치관과 생각들을 보며 그들이 얼마나 그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또 일관된 나의 가치관을 다른 팀원들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더욱 내 가치관이 굳어지는 것 같다.



주옥같은 수요일 수업

우리팀원 네 명의 시간표에는 모두 수요일이 비어있었다. 수요일은 좀 쉬는가? 싶었는데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바로 ‘문화 교류 시간’. 우리 라이동 학교가 아닌 주위의 다른 학교들을 찾아가 세시간동안 문화교류 활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학교가 아니기에 낯설기도 하고 세시간동안 무얼할지 처음에는 막막했다. 회의의 회의 끝에 우리는 총 3교시의 수업을 짰다.

11월 26일, 12월 3일 수요일 하루에 두 학교 씩 총 네 학교를 찾아가 활동을 진행하였다. 생각보다 수요일 수업은 꽤 힘들었다. 첫 학교였던 parklong학교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심쿵. 1교시 수업을 하다가 누군가가 문득 ‘근데 우리 김밥 재료 챙길 때 김 챙겼니?’하는데, 생각해보니 아무도 김을 안 챙긴 것이다. 김 없는 김밥이라니. 모두 멘붕. 결국 몇몇 단원들이 우리 학교로 돌아가 김을 찾아왔다. 다행이 2교시는 팀원 두명 이서도 진행이 가능해 수업에는 차질이 없었지만 그 날만 생각하면 아찔하다. 나머지 세 학교도 고생의 연속이었다. 소고춤까지 춰야하니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잘 따라주고 선생님들께서도 잘 대해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수요일 수업

- 1교시 : 한국문화 소개 - 한국 전통춤이자 우리 팀의 애물단지 '소고춤'공연과 '개구리 찾기'노래와 율동 및 한복 소개
- 2교시 : ASEAN MAPPING - ASEAN국가들의 위치 소개 및 지도, 국기 만들기
- 3교시 : 한국 음식 만들기 - 김밥 만들기

민희 바쁘고 정신 없이 흘러갔던 수요일 수업! 많이 깨지고 많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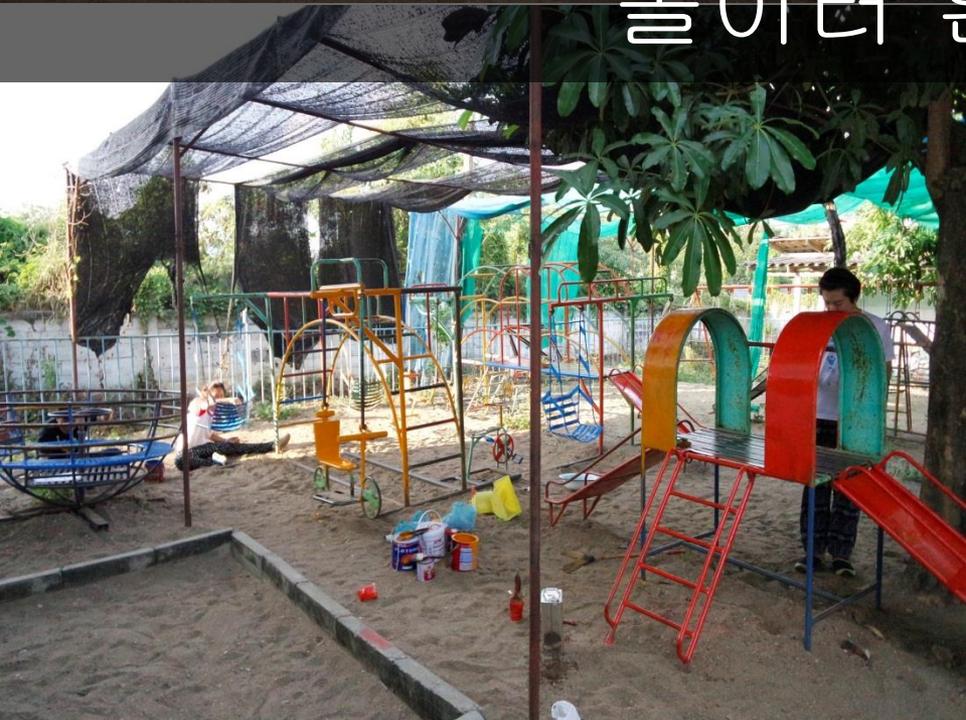
동영 다른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들을 만난다는 건 즐거운 일이지만, 수요일 수업은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은 수업이었다. 수업은 어느 순간 당연하게 하는 것이 되어 있었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 수업 참가 인원은 한 번도 정확하지 않았다. 여러모로 아쉬움만 남는다.

우희 이런 일회성 수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조금이라도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김밥을 열심히 만들고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미래 화요일 밤이 되면 '아 내일 수요일 수업..가기싫다.'생각이 들지만 막상 또 가면 새로 보는 아이들과 잘 놀다온다. 팀원들끼리 머리 맞대고 계획하고 수업 진행하고. 지나고 나니 다 좋은 경험!



놀이터 환경개선



놀이터 환경개선

교장선생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벽화 그리기와 놀이터의 놀이기구 페인트칠을 제안하셨고 우리는 흔쾌히 수락하였다. 우선 벽화의 도안을 그리기 위해서 회의를 한 결과 우리의 의견보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민희 단원의 미술 수업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린 도안을 바탕으로 하나를 정했다. 도안을 그린 후 색칠을 하며 놀이기구 페인트칠도 같이 하였다. 우리 넷이서만 했었다면 오래 걸릴 일이었지만 학생들의 도움으로 5일 만에 끝낼 수 있었다. 2단계가 끝나고 피폐가 잠시 학교에 들렸었는데 모래 다지기과 햇빛가리개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안하셨고 24일날 실행하였다. 이때는 학부모님들까지 도와주셔서 2시간이라는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었다.

민희 수업을 통해서 유치원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벽화 작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다. 벽화가 완성 되고 나서는 아이들도 마음에 들었는지 예전보다 더 마음을 열고 나와 놀아주었다. 벽화 작업을 열심히 도와준 중학교 친구들, 그리고 모래 옮기는 것을 도와준 초등학교 아이들 모두 고맙고 사랑스럽다.

동영 금방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다. 페인트 칠은 쉽지가 않았고, 알록달록하게 칠하는 건 더욱 어려웠다. 페인트 칠은 정말 싫다.

우희 시작하기 전에는 아, 우리도 다하는 벽화와 페인트칠을 하게 되었구나 이 많은 것들을 언제 다하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도와주는 학생들과 함께 재미있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하였고 학생들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미래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참 즐거웠다. 특히 마지막 날 아이들, 학부모님들과 함께 모래를 옮길 때는 몸은 힘들었지만 기분이 좋았다. 다같이 땀 흘리며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가. 그리고 신기한 것은 우리 넷을 낫가리던 유치부 아이들이 이 일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온다는 것이다. 라이동 학생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가방 만들기

가방 만들기

- 엔드포버티 캠페인이 끝나고 남은 가방들에 대해 고민하다가 라이동에 서도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가방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대상을 누구로 할 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라이동 학교와 왓남딕 학교가 학생 교류를 하고 있어서 라이동 학교 학생의 개념이 애매했다. 또 비닐봉지 이야기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가방 만들기가 주가 되었고, 캠페인이라는 호칭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민희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자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시간이었다. 특히, 초등학교 1, 2, 3학년 42명의 학생을 동시에 가르쳤던 미술시간에는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써주기 어려웠는데, 가방 만들기를 하면서 학년 별로 나누어 만날 수 있었다.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 줄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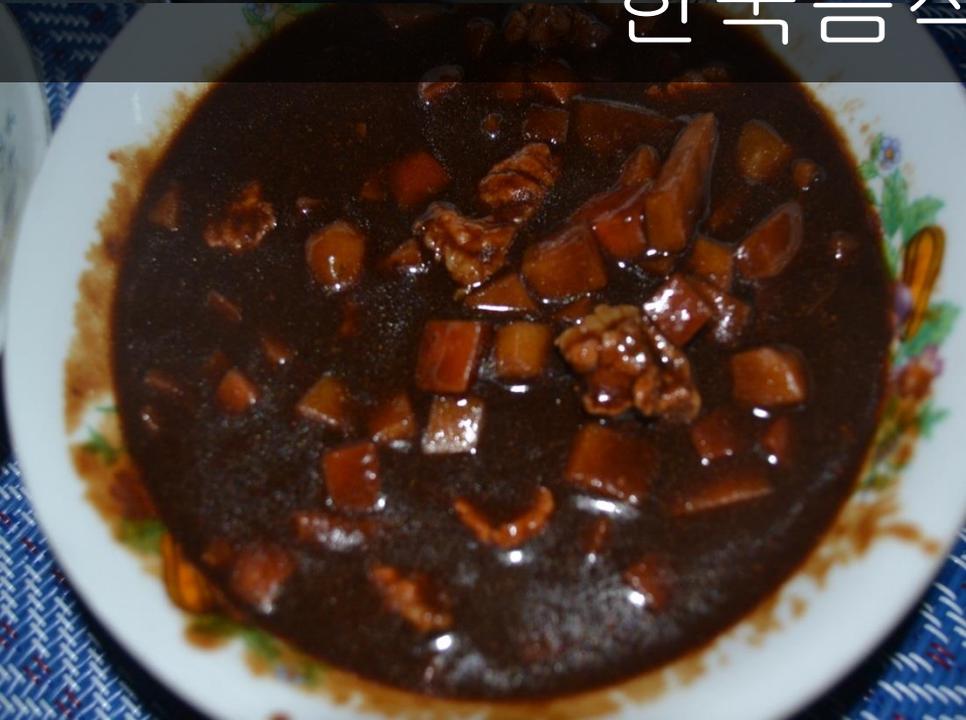
동영 결국은 가방 만들기로 끝이 나 아쉽지만, 아이들이 잘 들고 다니는 걸 보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우희 시작은 캠페인 이었지만 결국엔 가방 만드는 게 중심이 된 것 같아서 살짝 아쉬움이 남았다.

미래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가방을 만든 것 같아 기분이 좋다. 그렇지만 처음의 의도가 잘 전달되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음식 만들기



한국음식 만들기

동영단원의 “가족들을 위해 한국음식을 대접해 드리자!” 라는 말에서 시작한 한국 음식 만들기. 모두들 맛있다고는 하는데 한, 두 손가락만 드시고 결국엔 우리가 다 먹었다는 슬픈 진실이...

민희 나를 정말 아껴주신 메오 이모 생신날이기도 해서 더욱 뜻깊은 날이었다! 한 입 먹어보라는 간청에 조금 맛보고는 계속 태국 음식으로 입을 정리하던 가족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인기 없던 나의 비빔밥이 가장 맛있다고 말해줬던 닛에게 정말 고맙다 ㅎㅎ

동영 가족들에게 미리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가족만 오질 않았다. 그전에 내가 했던 음식들이 정말 별로였기에 뭐라고 할 말은 없었지만, 조금 섭섭했었다. 팀원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얘기도 하면서 즐거웠지만, 원래 의도는 이게 아니었기에 씁쓸했다

우희 사실 우리 가족은 내가 집에서 한국라면만 끓여도 맛있다고 잘 드셨다. 우리의도와는 다르게 한국음식은 맛없다는 생각이 드실까봐 두렵지만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미래 지난 번 집에서 혼자 한국라면을 해서 드렸는데 나는 라면조차 잘 못 끓이기에 가족들 모두 한입 씹 먹고는 맛없다며 가버렸었다. 동영이오빠와 수제비도 한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가족들이 한입만 먹고는 가버렸다. 그 이후로 우리가족은 한국음식=맛없다 라는 공식이 생긴 듯 해서 이번엔 진짜 맛있게 해서 드려야지! 생각했는데 뭐 결론은 또 우리만 맛있게^o^ 그래도 예전부터 한국음식 먹고 싶다고 하셨으니 궁금증은 해결되셨겠지?하하



선생님들과의 시간 ① 야유회



야유회

- 12월 17일 선생님들과 다 함께 라이동에서 세시간정도 떨어진 pare라는 도시로 놀러 갔다. 새벽 6시에 출발하여 도착한 곳은 왕족이 사용한 길로 추정되는(태국어 이해 한 계 ㅎ) 별장이었는데 각종 왕족들 사진과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왕실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태국인들에게는 구경하기 좋은 곳이었다.(=충성도 없는 우리에게겐 뭐 그저 그런 ㅋㅋ) 다음엔 기이한 암석들이 많은 곳에 갔다. 지구과학과 동 떨어진 우리 넷은 암석들의 정확한 명칭도 몰랐지만 버섯 모양처럼 우후죽순 서있는 암석들이 그저 신기했다. 선생님들과 사진도 찰칵찰칵. 밥도 먹고 기념품도 사니 어느덧 늦은 오후 다시 라이동으로 돌아갔다.

민희 원래 나는 딱히 과자를 자주 먹는 편이 아니다. 하지만, 과자를 반찬으로도 먹을 만큼 과자를 사랑하는 우리 언니 눈에는 여행 중에 과자를 사먹지 않는 내가 이상했나 보다. 계속 걱정하시며 손에 돈을 쥐어주시기도 했다. 언니의 걱정을 해결해주기 위해 저녁으로 밥 대신 국민 과자 래이를 먹었더니 안심하셨다. 요즘엔 나도 과자를 반찬으로 먹는 정도의 레벨이 되었다.

동영 분명히 여러 곳을 들렸는데, 이름은 모르겠고 남아있는 건 사진 뿐이다. 어디를 간다는 설레임, 그리고 아이들이 아닌 선생님들과 함께였기에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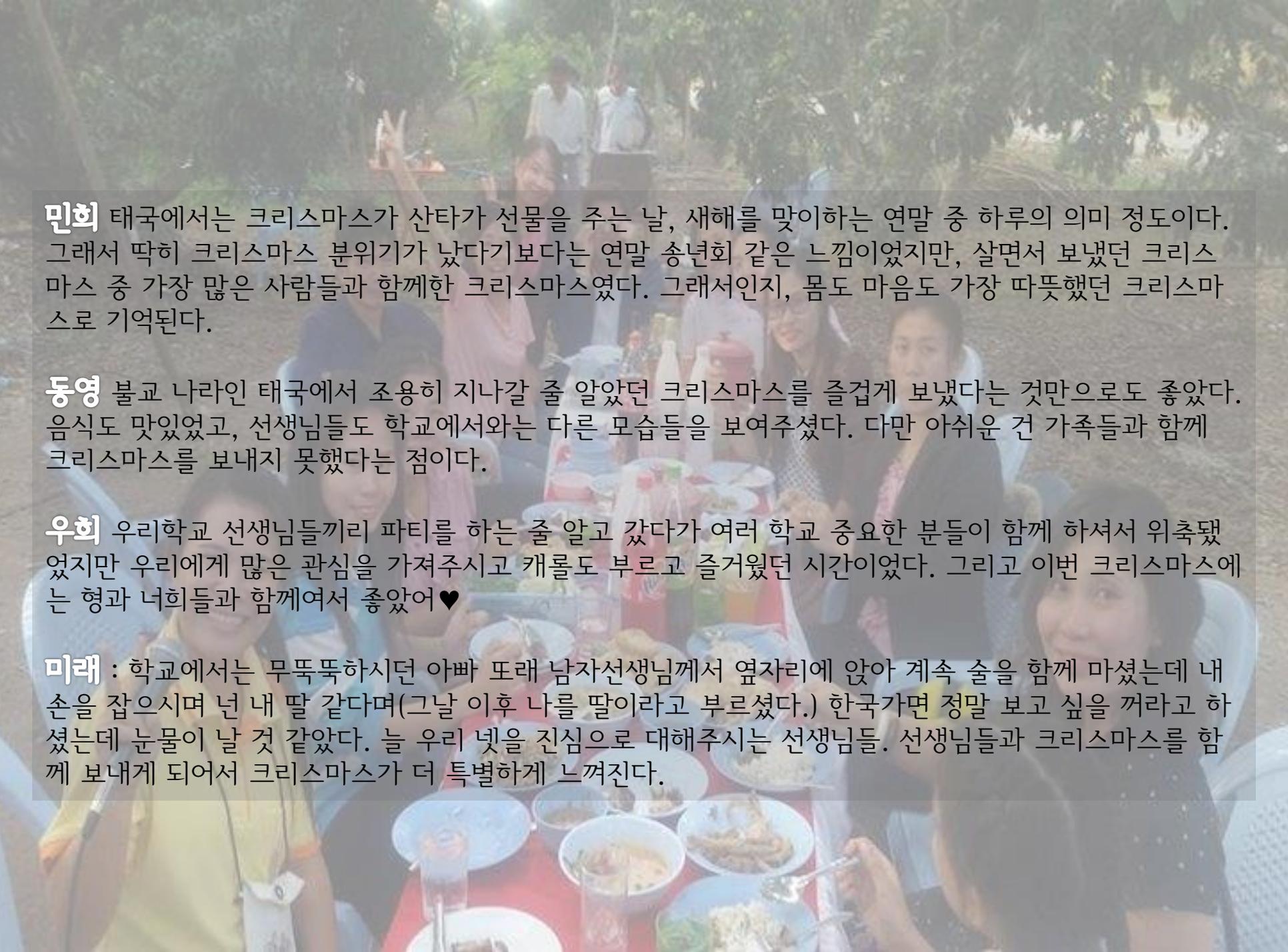
우희 처음으로 선생님들과 만의 시간을 보낸 날! 출발하기 전에는 어렸을 때 소풍 갔던 일이 생각나면서 설레기도 하였다. 선생님들과 사진도 많이 찍고 친해질 수 있었던 날 이었다.

미래 선생님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우리 팀원 넷끼리만 너무 떠든 것 같아서 지나고 나니 조금은 아쉽다. 그래도 항상 우리를 챙겨주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하다.



선생님들과의 시간 ② 크리스마스 파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태국에서는 빨간 날이 아니기에 우리는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장선생님께서 본인 가든에서 저녁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며 선생님들과 우리를 초대하셔서 수업이 끝나고 그 곳으로 향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만 오는 줄 알고 신나서 들떠있었는데 막상 가든에 가니 근처 학교 교장선생님들 열분 정도 오셔서 회의를 하고 계셨다. 약간은 엄숙해 보이는 분위기에 우리는 입술 삐죽.. 하지만 회의가 다 끝나고 우리 학교 선생님끼리 다 함께 테이블을 잡고 맛있는 바베큐와 술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희단원과 미래단원은 크리스마스 캐롤까지 불렀다. 그냥 평범하게 지나쳤으면 약간은 서운했었을 크리스마스를 선생님들과 다같이 보내니 특별했다.



민희 태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산타가 선물을 주는 날,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 중 하루의 의미 정도이다. 그래서 딱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났다기보다는 연말 송년회 같은 느낌이었지만, 살면서 보냈던 크리스마스 중 가장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 크리스마스였다. 그래서인지, 몸도 마음도 가장 따뜻했던 크리스마스로 기억된다.

동영 불교 나라인 태국에서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던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음식도 맛있었고, 선생님들도 학교에서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셨다. 다만 아쉬운 건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희 우리학교 선생님들끼리 파티를 하는 줄 알고 갔다가 여러 학교 중요한 분들이 함께 하셔서 위축됐었지만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캐롤도 부르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에 는 형과 너희들과 함께여서 좋았어♥

미래 : 학교에서는 무뚝뚝하시던 아빠 또래 남자선생님께서 옆자리에 앉아 계속 술을 함께 마셨는데 내 손을 잡으시며 넌 내 딸 같다며(그날 이후 나를 딸이라고 부르셨다.) 한국가면 정말 보고 싶을 꺼라고 하셨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늘 우리 넷을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선생님들. 선생님들과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게 되어서 크리스마스가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선생님들과의 시간 ③ 송년회

이전 태국 기수 중에 홈스테이 선생님들의 부정적 평가에 의해 갑자기 학교를 변경해야 했던 팀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아띠들에게 '선생님'의 존재는 약간은 조심해야 할(?) 분들이었다. 물론, 정말 편하게 잘 대해주셔서 12월이 끝나갈 무렵엔 늘 웃으며 인사하는 반가운 분들로 느껴졌지만 말이다.

그런 선생님들이 연말연시에 열리는 송년회에 송별회를 겸하여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송별회에서 아띠들은 드렸던 사랑에 비해 너무도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선생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아껴주셨는지를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솔직히, 아띠들에게 이별을 아쉽게 하는 사람들은 가족, 학교의 아이들, 마을 주민 분들이었다. 하지만 선생님들 역시 아띠를 아껴주시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셨다. 홈스테이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선생님들은 소중한 홈스테이 인연이었다.

민희 나에게 ‘선생님’이란 단어가 주는 약간의 위압감 때문인지, 처음엔 선생님들이 친근하게 대해주셔도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두 달간 수업도 도와주시고,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선생님들과의 시간이 편안해졌다. 다들 언니, 이모, 엄마 같이 잘 챙겨주신 덕분이다. 학교에서도 곳곳에 웃으며 인사할 사람이 있어서 참 행복했다.

동영 미래가 한 말이 떠오른다. 아이들과의 이별만 생각했는데, 선생님들과의 이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매일 인사만 하는 사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다.

우희 선물 교환하는 자리라고 해서 농담으로 우리 것도 있겠지?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정말 우리 선물을 주셔서 좋기도 하면서 마음 속 한편에는 한 것도 없는데 받아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날. 하지만 음주가무하면서 정말 신났던 날이었다.

미래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틀 후면 떠난다는 사실에 더욱 아쉬운 밤이었다. 선생님들께서 선물도 한 보따리 챙겨주셔서 몸둘 바를 몰랐다. 늘 우리를 챙겨주시는 선생님들..진짜 너무 감사하다 늘.

솔

직

한



까
문

의

12

월



라이동에서의 68일.



새로운 가족들을 만났고,





아이들을
만났다.

그리고 개들도!



안(2세) ♂
(우리 집 개 같은 옆집 개)



뚝뚝(4세) ♂
(확실한 우리 집 개)



가족들에게 하지 못한 말

새해가 시작되기 전날 나는 다른 팀원과 싸웠고, 라이딩에 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YMCA 스태프들에게 얘기해 산캠핑으로 가도 되는지를 물어봤다. 자세한 사정을 들은 피페는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가족들이 동의한다면 와도 된다고 했다. 가족들에게 산캠핑으로 간다고 얘기하면서 왜 가는지를 설명하는데, 내 짧은 태국어로는 의미가 전달되지 않았다. 엄마와 같이 학교로 가 선생님들에게 다시 얘기를 했고, 선생님들이 YMCA 스태프들과 통화하면서 엄마는 대략의 사정을 알게 되셨다. 혼자서 가는 건 걱정된다고 얘기 하시면서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혼자 있고 싶었던 나는 계속 가겠다는 얘기만 했다. 대화가 슬슬 내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을 무렵,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다. 혼자 있는 건 걱정되니까 가지 말라고, 집이 싫으면 다른 집에 있어도 되니까 가지 말라고 하셨다. 울면서 얘기하시는데 차마 가겠다는 말이 나오질 않았다. 나만 생각하는 나를 걱정해 눈물을 흘리는 엄마께 너무 죄송했다.

마지막까지 말하지 못했다. 그 때는 너무 죄송했다고,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의 집을 얼마나 좋아하고, 가족들, 개 푹피기도 좋아했다는 걸.

(까몬의 파파야 바구니)

쓰쓰했던 한국 요리 도전



12월 13일, 부대찌개
조리법도 찾아보지 않고 생각나는 재료들을 모두
넣었고, 결과물은... 내가 봐도 이상하다.
가족들 수를 생각해서 많이 끓였지만, 다들 많이 먹
지 않아서 나 혼자 쓰쓰히 반 이상을 먹었다.

12월 15일, 수제비
멸치 다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요리를 찾다가 수
제비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미래와 같이 만들었
는데 모양새는 정말 그럴 듯 했다. 다만 밀가루를
잘못 샀는지 반죽들이 떡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도 미래랑 내가 대부분을 먹어야 했다.



12월 28일, 한국라면
실패할 수 없는 라면이지만, 혹시나 해서 3개를 끓였다. 하
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먹지 않았다. 다행히 미래가 가족들
과 먹는다면 덜어갔고, 나머지는 내가 다 먹어야 했다.

+ 한국 춤 수업



1월 9일 어린이날 행사 공연을 대비해 한국 춤을 알려주었다. 대전에서 배운 '굳밤타령'과 춤, 그리고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꼭두각시까지. 족두리는 구할 수 없어서 민희와 하루 종일 접어서 만들었다. 연습이 힘들었지만, 웃으면서 연습해 준 아이들에게 고맙다. (같이 족두리 접어준 민희도)



시간에 대한 고찰

시간이 흘러간다. 처음에는 천천히 흘러가서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피곤하니까, 귀찮으니까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을 나중에 미뤄두었다. 시간은 많으니까 굳이 지금 안 해도 된다고 착각했다. 68일은 길다고 생각했다.

68일이 지난 지금, 시간이 엄청난 속도로 나를 지나쳐 갔다는 걸 알았다. 2달이라는 시간이 나에게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가족들에게는 나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다.

나는 항상 너무 늦게 깨닫는다. 아무렇지 않게 흘러버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그래서 마지막에 울었는지도 모르겠다. 내 손에서 빠져나간 것들이 얼마나 값진 것들인지 깨달았기에, 다시는 나에게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에.

너의 의미

너와 함께여서 즐거웠고,
너와 함께여서 웃을 수 있었다.

너와 함께여서 힘들었지만,
너이기에 우리는 다시 손을 잡고
함께 할 수 있었다.

예전의 나는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한다.

다행이다.
이번에는 늦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를
지금이나마 알게 되어서.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 정현종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

더 열심히 파고 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것 ...

반병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

모든 순간이 다아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인디의
라이프
한달... ☆



인디 홈스테이 이야기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내가 코끼리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더니 바로 그 주 주말에 코끼리를 보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설레는 마음으로 옆집 꼬마들,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한 시간정도 거리에 있는 코끼리 보호센터로 갔다. 이곳에서는 코끼리쇼와 함께 코끼리도 탈 수 있었다. 코끼리가 그림도 그렸는데 정말 나보다 잘 그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코끼리를 타봤는데 높은 곳에서 경치를 바라보니 내가 왕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오랜만에 아이로 돌아간 기분으로 즐겁게 보낸 하루였다.



인디 학교이야기

원래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이고 수업도 어린 친구들은 없다보니 라이동 스쿨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중3애들에게 특히 정이 많이 갔다. 수업할 때나, 축구를 할 때나, 배구를 할 때나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았다. 같이 웃고 내가 말을 못 알아들어 도 쉽게 설명해주고 항상 챙겨준 중3 친구들이 고맙다. 그리고 유일하게 어린 친구 중 한명이 날 좋아해준 친구가 있는데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다. 항상 날 보면 멀리서 웃으면서 달려와 옆에 꼭 붙어있었는데 그 미소가 잊히지 않는다.



인디 에세이

만 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고 하지만 막상 겪게 되니 말할 수 없이 정말 슬펐다. 라온아띠로서 다섯 달 중 태국 팀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 두 달의 홈스테이 처음에는 가족과 정붙이기도 힘들고 그저 빨리 시간이 지나가서 어서 산캄팽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새인가 나도 모르게 나는 우리가족의 아들이 되었고 선생님 그리고 라이동 마을사람이 되었다.

내 미숙한 글 솜씨로는 표현하기가 힘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두 달 살다가는 외국인인 나에게 사람의 정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준 것 같았다.

마을 어디를 가도 항상 웃으시며 인디왔냐고 말 걸어주시는 분들, 술 좋아하는 나를 알게 되시고 길가는 나에게 인디 오늘 위스키 마시자 하시는 분들, 날 제일 먼저 챙겨주시는 우리엄마, 말없이 과일을 건네주시는 우리아빠, 처음엔 거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줄곧 대화도 하는 동갑내기 형, 그리고 내 소중한 동생 닛 글로 쓰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내가 떠난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슬퍼해주신 우리 엄마친구들 아니 이제 그분들에게 난 아들이고 난 많은 엄마가 생겼다. 내가 결혼할 때 한국에 오시 겠다는 분들 하하....

이분들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시지? 라는 생각도 해보고 나는 여기서 무슨 존재일까? 라는 생각도 해봤다. 그럼에도 항상 답을 찾기는 어려웠다. 사실 글 쓰고 있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꿈같았던 두 달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나이기에 항상 내 마음속 한자리에는 라이동마을이 자리 잡을 것이다.

짚사이네 한국어 나들이

나의 홈스테이 가족이 할 수 있는 한국어는 다섯 개 정도 였다.
'모기', '잘 자요', '엄마 돕다', '밥 먹다', '또 만나요'

홈스테이 가족이 나와 함께 살면서 계속 입에 담았던 몇 가지 한국어 단어들. 지난 홈스테이 생활을 돌이켜보니 그 단어들만큼 그들과 함께한 시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또 있을까 싶었다.

예를 들면, 모기가 많은 태국에서 나는 가족들에 비해 모기에 자주 물리는 편이었는데, 모기가 보일 때마다 가족들은 '모기'를 외치며 나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주곤 했다. 늘 개조심, 차조심, 모기 조심 등 다치거나 아플까봐 늘 걱정해주셨는 홈스테이 엄마와 दा우 언니의 애용어였다.

또, '잘 자요'는 10시면 잠에 드는 엄마와 나랑은 달리 늘 자정까지 깨어있는 드안, दा우 언니가 자러 가는 나를 보며 해주는 말이었다. 나중에 알려드린 '잘 가요'와 늘 헛갈려서서 다른 아티들에게 인사로 늘 '잘 자요'로 잘못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자요'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집의 애용어였다.



‘엄마 돕다’



이 단어는 엄마의 애용어다.

나는 바느질, 설거지, 기타 단순 수작업을 좋아하는 편인데, 엄마가 하시는 일인 꽃목걸이 만들거나 말린 링껌(대추야자)에서 씨 빼내는 작업 등이 나랑 딱 맞았다. 그래서 나는 엄마가 일을 하실 때마다 슬그머니 옆에 가서 일을 배우고 같이 하곤 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 재밌게했다.

엄마는 금방 금방 배워서 빠른 속도로 따라 하는 내가 기특하셨는지 새로운 일이 생기면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엄마 돕다’라는 단어를 알려드리며 자랑하시곤 했다.

엄마가 들어가서 쉬라고 하실 때 “제가 계속 할테니 엄마가 들어가서 쉬세요”라고 말하면 참 좋아하셨다!

‘밥 먹다’



나는 정말x10 밥을 잘 먹는 편이다. 단 한번도 밥을 적게 먹는다고 누구를 걱정시킨 적이 없는데 홈스테이와서는 언니와 엄마에게 밥을 적게 먹는다고 늘 걱정을 샀다. 태국음식이 안 맞아서, 정말로 내가 적게 먹어서는 절대! 아니다. 늘 언니의 사랑 가득한 밥 한 그릇을 비워내는데, 언니가 보기엔 한 그릇 반은 먹어야 배가 부를 거 같나 보다. 여튼 늘 나에게 “อยากรกินอะไร[약किन아라이]”라며 먹고 싶은 걸 물어보던 우리 언니들! 사랑하는 만큼 먹이고 싶으셨던 언니들에게 ‘밥 먹다’는 가장 자주 썼던 단어가 아니었나 싶다. 덧붙이자면, 홈스테이 초반에 시장에서 언니들이 뭐 먹고 싶은지 물었을 때 나는 아무거나 상관 없다는 뜻으로 “ทุกอย่าง[투투ยกอขยวง] [투투ยก]”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뜻은 전부 다 먹고 싶다는 뜻이었다 ㅎㅎ 다 먹어보고 싶다는 내게 시장에 있는 음식을 다 먹여보지 못했다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언니는 헤어지는 날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내가 ‘투투ยก’이라고 말했던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눈물을 보이셨다.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落花)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에 이 시를 교과서에서 배웠다.
그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가 참 ‘쿨’하다 못해 냉정해
보였고, 이별로 성숙을 이룩한다는 것이 매우 무정하게만 보였다.

그런데, 홈스테이가 끝나갈 무렵부터 갑자기 이 시가 떠오르더니 계속 머리 속을
맴돌았다. 계속 곱씹어 볼 수록 뭔가 예정된 예정된 이별을 기다리는 나에게 많
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았다.

가야 할 때를 알고 돌아서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걱정을 인
내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별의 순간이 분분한 낙화를 통해 축복에 싸일 수 있었던 것은 봄이 한 철로 지
나가버릴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인내 속에서 꽃을 아름답게 피워냈기 때문이다.
무성한 녹음과 열매 맺는 가을도 역시 봄 한 철 피워냈던 그 꽃 덕분이다.

가야 할 때를 알고 있던 그라고 해서 이별이 슬프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이별 역
시 ‘낙화’처럼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면, 그 순간에 축복이 이룩되도록 더 걱정적
으로 사랑해서 열심히 꽃피워야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성숙한 영혼으로 여름,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견뎌내면 새 봄을 맞으면 또 다시 꽃피울 수 있을 것이므
로.

새로운 ‘이별’을 준비 중 지금.

화창하고 즐거운 나날의 연속이었던 봄을 떠나 보내는 중인 지금.
여름의 녹음이 더욱 무성할 수 있도록, 가을에 더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남은 봄 날 더 많은 꽃을 피워보겠다고 다짐해 본다.
걱정을 인내하는 뜨거운 사랑을 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12345의 일기



D-36 12월 4일



있을 때 잘하자!

아이들과 놀다 방에 들어왔는데 '아이들과 헤어질 때 어떤 느낌이 들까?' 문득 한 달 후가 생각났다. 슬플까? 눈물이 날까? 그냥 섭섭한 정도일까? 아이들은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떠나면 나를 그리워할까? 나를 금방 잊어버릴까?

곧 우울해졌다.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걸? 헤어짐은 나중에 생각하자 금방 생각을 접어버렸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더 열심히 놀아주고 더 열심히 가르치고 더 열심히 사랑하자!

D-25 12월 15일

우리집 개 '무무'

태국의 가정집에는 다들 개를 한 마리씩 기른다. 개 덕분에 음식물 쓰레기도 하나도 안나오고 다들 정겹게 생겨서는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다가오곤 한다. 처음 우리집에 왔을 때는 개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 우리 집은 개를 안 기르구나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 딱히 귀엽고 작은 강아지가 아니면 개에 별 관심을 안 보이는 나기에 주위의 다른 집 개들을 봐도 별 감흥이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얼마 전부터 자꾸 우리집에 와서는 날 보고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개를 보고 엄마에게 '이 개는 누구집 개예요?'하고 물었는데 이 개는 우리집 개 라는 것이다. 심지어 이름은 완전 귀여운 '무무'. 헐...우리집에도 개를 길렀다고? 여태 한달 반 동안 그 것도 몰랐다니... 엄마는 무무가 사돌아 다니는걸 좋아해서 집에 거의 없대며 몰랐을 수도 있겠다 말쓰해 주시겠지만 나는 나의 무관심과 떨어진 관찰력에 크게 실망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이후이다. 그 날 이후 한번도 못 봤던 무무가 매일 매일 보이는 것이다. 내가 무무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무무는 나에게로 와서 우리집 개가 되었다. 관심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관심이 생기니 비로소 보인다.

심지어 이 개가 우리집 개라고 하니 또 왜이리 귀엽게 보이는지. '내 것'이라는 소유, '우리'라는 하나의 틀에 묶이니 왜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행동하게 될까..... 흠....

D-17 12월 23일



더 가까이

나를 보면 늘 도망가던 다섯 살 아난. 그런 아난에게 늘 장난을 치러 다니고 매번 안아주었다. 어느 순간 아난이 바뀌었다. 이제 유치원 수업이 마치면 쫓르르 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나를 부르러는 아난. 내 품에 안겨 누워있기도 하고 나랑 사진도 찍고.

늘 똥해있던 3학년 뽀뽀. 한 날은 뽀뽀가 눈병이 낫는지 눈이 빨갛게져서 왔다. 매번 학교 올 때마다 눈은 괜찮아? 걱정을 해주었는데 눈이 다 낫고 어느 날, 3학년 수업을 하러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저 멀리서 뽀뽀가 달려와 내 손을 잡더니 선생님 같이 가요. 해맑게 웃는 것이다. 내가 마음을 여는 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깊숙히 마음을 열어주는 아이들. 고맙고 고맙다.



마지막 수업

점점 이별이 실감이 난다. 가져온 물품들도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아이들과 마지막 수업도 하였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마지막을 예감했는지 수업시간에 자꾸 안기고 뽀뽀하고 가지 마라고 내 팔을 자꾸 잡아 당긴다.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나 빨리 흘러가... 첫 수업이 떠오른다. 오로지 나에게 주어진 50분. 내가 아이들 앞에서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낯설었다.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종이를 들고 이리저리 다녔던 첫 일주일. 이제는 60명의 아이들이 모두 내 보물기다. 오지 않을 것 같던 마지막 수업이 끝나니 마음 한 편이 무거워진다.

점심을 먹고는 운동장에 앉아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아이들, 뛰어 노는 모습, 축구하는 모습, 웃고 떠드는 소리 모두 다 영화 속 장면 같았다. 사소한 것, 평범한 것, 늘 그대로인 것들이 문득 특별하게 느껴진다.

D-2 1월 7일



우리를 보내지 마세요..

이틀 후면 우리가 떠난다고 학교에서 송별식을 열어주셨다. 송별식이 열리는 강당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송별식을 하면 진짜 내가 떠나야 되니까 그냥 조용히 어디 숨어있다가 영영 떠나고 싶지 않았다. 아직 이틀이나 남았는데 왜 벌써 우리를 보내려고 하세요~ 선생님께 웃으면서 말했지만 마음 한 켠이 너무나도 무거웠다. 누가 툭 치면 눈물이라고 나올 것 같았다.

송별식 마지막엔 우리 넷 각자 소감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젯밤 동생의 도움을 받으며 종이에 소감을 뽀뽀해서 적어 준비해갔다. 하지만 말을 꺼내려고 아이들을 쳐다보는 순간 눈물이 너무 나서 결국은 한 두마디만 하고 울어버렸다.. 절대 울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벌써 마지막이라는데 너무 야속하고 속상하고 슬퍼서 눈물이 나버렸다. 진짜 나 가야 되는구나.. 가기 싫는데 나 이틀 후면 떠나는구나..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아이들과 선생님들께서 직접 그리고 쓴 편지들과 선물들도 주셨다. 또 감동 먹고 눈물 펄펄.. ㅠ ㅠ

D-1 1월 8일

...

홈스테이가 시작하고 나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신 것 같다. 바로 잤아저씨 때문! 저녁 6시만 되면 우리집에 찾아와서는 나와 매일 '잔~'을 하고 가시는 잤아저씨. 나를 아껴주시고 딸처럼 여기주시는 아저씨. 내가 없는 다른 곳에서도 매번 내 이야기를 하신다고 한다. 오늘 저녁도 어김없이 잤아저씨가 찾아 오셨다. 평소와 다른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잔~'을 하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너 떠나면 이제 나는 누구랑 잔을 하나.. 내일 저녁에는 너가 없겠구나'라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내일이면 아저씨가 우리집에 와도 내가 없겠구나... 갑자기 나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애꿎은 맥주만 계속 마셨다. 그리울 사람 참 많겠구나. 나를 그리워 하실 분도 참 많겠구나. 이 곳에 와서 나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가는 것 같다..

아저씨가 떠나고 아직 못다한 짐 정리를 완성한 뒤 가족들에게 쓴 편지를 주러 엄마가 계시신 부엌으로 나갔다. 엄마에게 편지를 드리며 보고싶을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또 눈물이 나왔다... 엄마도 우시고 나도 우시고... 엄마를 안고 펑펑 울었다. 내가 제일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엄마는 내가 맛있어하는 것은 꼭 기억하신다. 우유는 옥수수 맛, 레이라자는 김 맛, 아침반찬엔 곤치양 필수. 내가 좋아하는 걸 기억하시곤 매일 사주시는 우리 엄마. 내가 조금이라도 아파보이면 늘 걱정하시는 엄마. 어딜가든 내 자랑을 하시는 엄마. 내가 내일 떠난다고 혼자 밖에서 우시던 우리엄마. 나에게 이런 가족이 생겼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 그래서 더 더욱 슬픈.. 떠나기 하루 전

D-DAY 1월 9일



이별은 낯설다.

절대 오지 말라고 외쳐대던 그 날이 와버렸다. 아침부터 우울 우울. 짐을 모두 싣고 학교로 향하였다. 학교 앞 거기 선생님네 집에서 마지막 점심 만찬이 있었다. 모든 가족들, 선생님들이 오셔서 함께 맛있는 고기도 먹고 사진도 찍고. YMCA스텝들이 3시에 데리러 온다 했기에 그 전까지는 모두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계속 시계를 힐끔 힐끔 쳐다보며 제발 시간아 가지마라 주문을 외웠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을까. 지나가는 차소리에 다들 말은 안해도 신경이 쓰이는지 계속 차들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곧 Y스텝들이 오시고 우리는 떠나야 했다. 모두들 우겼다. 절대 울지 않을 것 같던 내동생 미우도 울고, 선생님들도 우시고. 그만 울어야지 해도 자꾸 눈물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아닌데, 다시 내가 놀러와서 볼 수 있는데.. 이별은 언제나 너무나도 힘들다. 이별은 늘 낯설다.

D+1 1월 10일

꽤 후유증이 크다.

항상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있다가 YMCA로 돌아오니 혼자 남겨진 기분이다. 집을 푸는데 자꾸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너무 힘들었다. 헤어짐이라는데 아직은 나에게 너무나 큰 일인 듯하다. 이별하는게 너무 힘들어서 라온아띠 지원한것도 처음으로 후회가 되었다. 차라리 만나지 말걸... 홈스테이 들어가기 전 두 달 동안은 힘든일이 있어도 '아 그래도 11월 홈스테이 들어가면 다 괜찮아지겠지~' 안심 삼았었다. 나는 '라온아띠=홈스테이&학교수업' 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라이동 마을에 대한 애착이 컸다. 하지만 홈스테이가 끝나고 남은 기간동안 가족들과 아이들 없이 잘 버틸 수 있을까 스스로 걱정도 되었다.

YMCA로 돌아와서 다음 날 아침, 부엌으로 내려갔는데 밥도 먹기 싫어 방으로 들어갔다가 점심도 한 두 숟갈 먹고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런 나와 민희가 걱정되었는지 동영이오빠와 우희오빠가 케이크와 배낭을 사왔다.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지?정글)

그 때 조금 정신차린 것 같다.

그래도 나에게에는 우리 팀원들이 있지! 남은 기간 다시 잘 있다가 돌아가자 !!! 고맙다 모두들.